

2011년 기업 일자리 및 교육훈련 전망

송창용·민주홍·박주완·황승록·손희전*

*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원패널·통계센터 인적자본기업패널팀

2011년 기업 일자리 및 교육훈련 전망

《조사 개요》

- 조사명: 인적자본기업패널 부가조사
- 목적: 기업 일자리 및 교육훈련에 대한 전망 조사
- 조사기간: 2010년 11월 1일(월) ~ 2010년 11월 26일(금)
- 조사대상: 100인 이상 600개 기업의 인사담당자
- 조사내용:
 - 2010년 하반기 대비 2011년 고용 전망
 - 2011년 1년 동안 각 기업의 고용 계획
 - 채용 및 교육훈련 관련 사항
- 조사대상 기업 분포

구분			규모			총합
			100~299명	300~999명	1000명 이상	
업종	제조업	빈도	351	90	24	465
		(비율)	(75.5)	(19.4)	(5.2)	(77.5)
	비금융	빈도	83	21	8	112
		(비율)	(74.1)	(18.8)	(7.1)	(18.7)
	금융업	빈도	10	6	7	23
		(비율)	(43.5)	(26.1)	(30.4)	(3.8)
총합		빈도	444	117	39	600
		(비율)	(74.0)	(19.5)	(6.5)	(100.0)

2011년 기업 일자리 및 교육훈련 전망

I. 2011년 고용 전망

■ 2011년 고용은 2010년과 대체로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

- 600개 기업 중 161개(26.8%)에서 2011년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
 - 금융업이 제조업이나 비금융서비스업에 비해 고용 증가가 많을 것으로 예상
 - 금융업 45.5%, 비금융서비스업 26.8%, 제조업 26.0%의 순으로 나타남.
 - 1,000명 이상 기업에서 2011년 고용이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
 - 1,000명 미만 기업에서는 25% 내외, 1,000명 이상 기업에서는 38.5%로 나타남.

〈표 1〉 2011년 고용 전망

구분		사례 수	고용증가(수)	비율(%)
전체		600	161	26.8
업종	제조업	465	121	26.0
	비금융	112	30	26.8
	금융업	23	10	43.5
규모	100~299명	444	120	27.0
	300~999명	117	26	22.2
	1000명 이상	39	15	38.5

- 모든 업종 및 규모별로 약 60% 내외의 기업에서 2011년 고용은 2010년에 비해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
 - 금융업이 비금융서비스업이나 제조업에 비해 2011년 고용이 비슷하거나 클 것으로 전망
 - 금융업 100.0%, 제조업 91.8%, 비금융서비스업 82.2% 순임.
 - 1,000명 이상 기업에서 2011년 고용이 비슷하거나 가장 클 것으로 전망
 - 100~299명 90.1%, 300~999명 89.0%, 1,000명 이상 97.4%임.

〈표 2〉 2010년 대비 2011년 고용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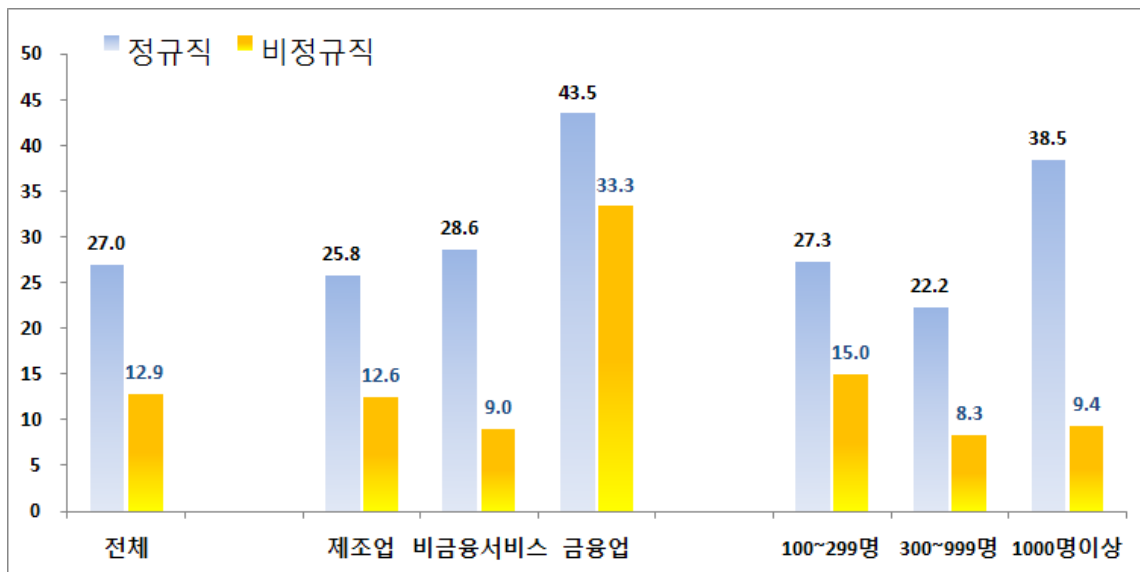
구분			매우감소	감소	비슷	증가	매우증가
전체		빈도	3	55	381	156	5
		(비율)	(0.5)	(9.2)	(63.5)	(26.0)	(0.8)
업종	제조업	빈도	2	36	306	119	2
		(비율)	(0.4)	(7.7)	(65.8)	(25.6)	(0.4)
	비금융	빈도	1	19	62	28	2
		(비율)	(0.9)	(17.0)	(55.4)	(25.0)	(1.8)
	금융업	빈도	0	0	13	9	1
		(비율)	(0.0)	(0.0)	(56.5)	(39.1)	(4.4)
규모	100~299명	빈도	3	41	280	116	4
		(비율)	(0.7)	(9.2)	(63.1)	(26.1)	(0.9)
	300~999명	빈도	0	13	78	25	1
		(비율)	(0.0)	(11.1)	(66.7)	(21.4)	(0.9)
	1000명 이상	빈도	0	1	23	15	0
		(비율)	(0.0)	(2.6)	(59.0)	(38.5)	(0.0)

1.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용 전망

■ 2011년은 비정규직에 비해 정규직의 고용이 더 많이 증가할 전망

- 정규직 고용은 27.0%의 기업에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
 - 금융업이 제조업이나 비금융서비스업에 비해 고용 증가가 많을 것으로 예상
 - 제조업 25.8%, 비금융서비스업 28.6%, 금융업 43.5%임.
 - 1,000명 이상 기업에서 2011년 정규직 고용이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
 - 100~299명 27.3%, 300~999명 22.2%, 1,000명 이상 38.5%
- 비정규직 고용은 12.9%의 기업에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
 - 금융업이 비금융서비스업이나 제조업에 비해 고용 증가가 클 것으로 예상

- 금융업 33.3%, 제조업 12.6%, 비금융서비스업 9.0%의 순으로 나타남.
- 100~299명 기업에서 비정규직 고용 증가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
 - 100~299명 15.0%, 300~999명 8.3%, 1,000명 이상 9.4%



[그림 1]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용 증가 비율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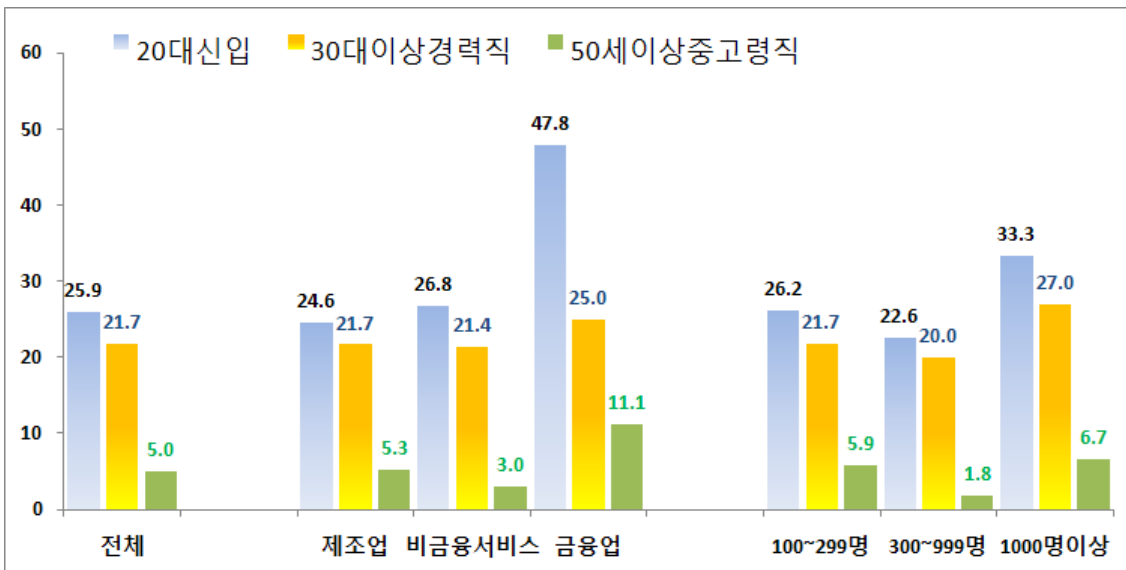
2. 연령별 고용 전망

■ 2011년은 20대 신입직원, 30·40대 경력직원 순으로 고용이 증가할 전망

- 20대 신입직원은 25.9%의 기업에서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
 - 금융업에서 20대 신입직원의 고용이 비교적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
 - 금융업 47.8%, 비금융서비스업 26.8%, 제조업 24.6%의 순으로 나타남.
 - 1,000명 이상 기업에서 20대 신입직원의 고용이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
 - 100~299명 26.2%, 300~999명 22.6%, 1,000명 이상 33.3%임.

- 30·40대 경력직은 21.7%의 기업에서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
 - 모든 업종에서 30·40대 경력직은 20% 대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
 - 금융업 25.0%, 제조업 21.7%, 비금융서비스업 21.4%의 순으로 나타남.
 - 1,000명 이상 기업에서 30·40대 경력직의 고용이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
 - 100~299명 21.7%, 300~999명 20.0%, 1,000명 이상 27.0%

- 50대 이상 중·고령직은 5.0%의 기업에서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
 - 금융업에서 50대 이상 중·고령직의 고용이 비교적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
 - 금융업 11.1%, 제조업 5.3%, 비금융서비스업 3.0%의 순으로 나타남.
 - 1,000명 이상 기업에서 50대 이상 중·고령직의 고용이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
 - 100~299명 5.9%, 300~999명 1.8%, 1,000명 이상 6.7%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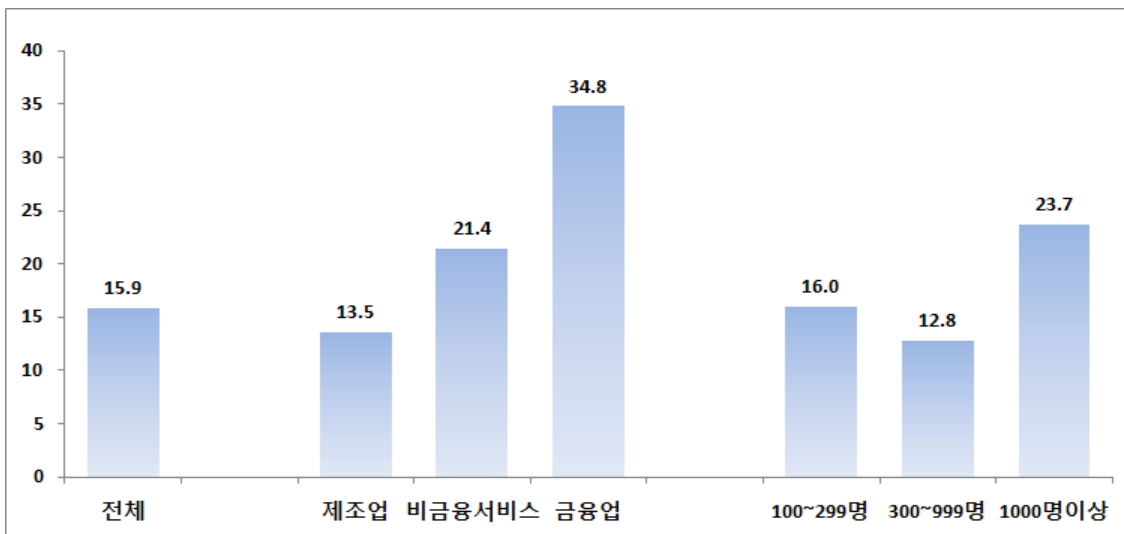


[그림 2] 연령별 고용 증가 비율(%)

3. 여성인력 고용 전망

■ 2011년 여성인력에 대한 고용 증가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

- 기업의 15.9%가 여성인력의 고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
 - 금융업에서 여성인력의 고용이 비교적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
 - 금융업 34.8%, 비금융서비스업 21.4%, 제조업 13.5% 순임.
 - 1,000명 이상 기업에서 여성인력 고용이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
 - 100~299명 16.0%, 300~999명 12.8%, 1,000명 이상 23.7%임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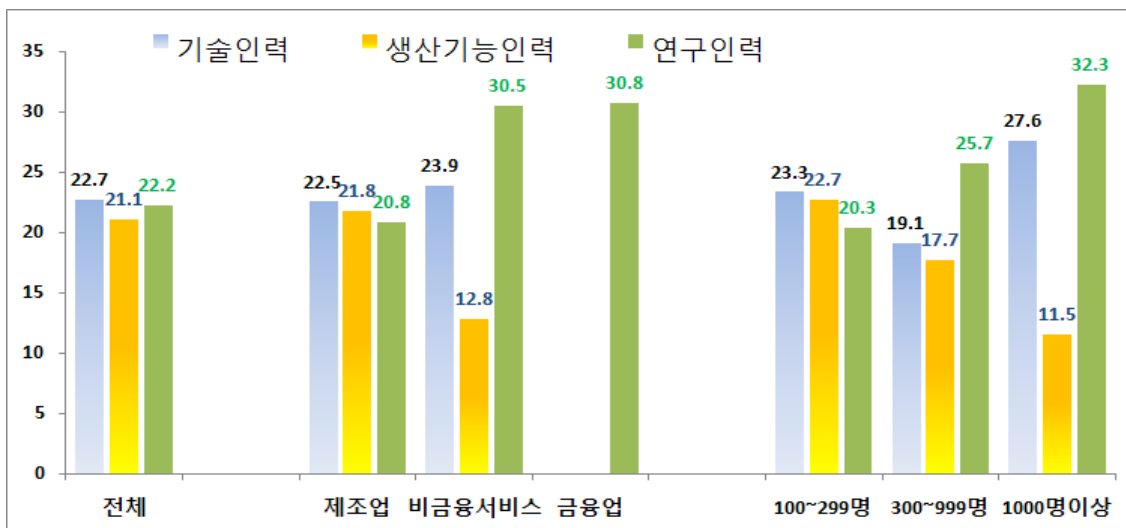
[그림 3] 여성인력 고용 증가 비율(%)

4. 직종별 인력 고용 전망

■ 2011년 직종별 인력은 21% 내외로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

- 기술인력 고용은 기업의 22.7%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
 - 제조업과 비금융서비스업에서 21% 내외로 기술인력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

- 비금융서비스업 23.9%, 제조업 22.5% 순임.
- ※ 금융업의 경우 기술인력 부분은 해당사항 없음.
- 1,000명 이상 기업에서 기술인력 고용이 가장 많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
 - 100~299명 23.3%, 300~999명 19.1%, 1,000명 이상 27.6%
- 21.1%의 기업에서 생산기능직의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.
 - 제조업에서 생산기능직의 고용이 비교적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
 - 제조업 21.8%, 비금융서비스업 12.8%임.
 - ※ 금융업의 경우 생산기능직 인력 부분은 해당사항 없음.
 -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생산기능직에 대한 고용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.
 - 100~299명 22.7%, 300~999명 17.7%, 1,000명 이상 11.5%
- 연구개발 인력 고용은 기업의 22.2%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
 - 금융업과 비금융서비스업에서 연구개발 인력 고용이 비교적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
 - 금융업 30.5%, 비금융서비스업 30.5%, 제조업 20.8% 순임.
 -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연구개발 인력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
 - 100~299명 20.3%, 300~999명 25.7%, 1,000명 이상 32.3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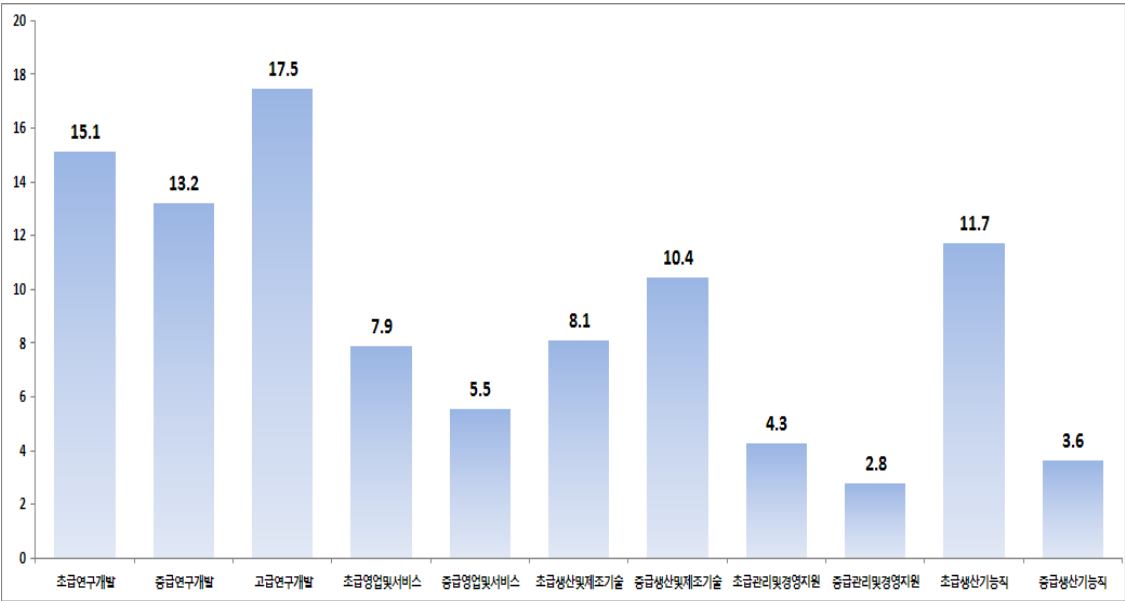


[그림 4] 직종별 인력 고용 증가 비율(%)

5. 분야별 인력 채용 전망

■ 기업에서는 연구개발 인력의 채용이 대체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

- 2011년 채용 시 어려움이 가장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고급연구개발 인력(17.5%)임.
- 다음으로 초급연구개발 인력(15.1%), 중급연구개발 인력(13.2%), 초급생산기능직 인력(11.7%), 중급생산 및 제조기술 인력(10.4%)의 채용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.



[그림 5] 채용 시 어려움이 예상되는 분야(%)

Ⅱ. 2011년 대졸 초임 전망

■ 제조업, 금융업에서 약 50%의 기업이 대졸 초임 인상 전망

- 대졸 초임 연봉 인상은 제조업 47.2%, 비금융서비스업 28.6%, 금융업 50.0%로 나타남.
- 기업 규모별로는 100~299명 40.8%, 300~999명 52.7%, 1,000명 이상 51.4%가 대졸 초임을 인상할 것으로 나타남.

〈표 3〉 2010년 대비 2011년 대졸 초임 전망

구분		삭감	동결	인상
전체	빈도	4	325	256
	(비율)	(0.7)	(55.6)	(43.8)
업종	제조업	빈도	2	236
		(비율)	(0.4)	(52.3)
	비금융	빈도	2	78
		(비율)	(1.8)	(69.6)
	금융업	빈도	0	11
		(비율)	(0.0)	(50.0)
규모	100~299명	빈도	4	254
		(비율)	(0.9)	(58.3)
	300~999명	빈도	0	53
		(비율)	(0.0)	(47.3)
	1000명 이상	빈도	0	18
		(비율)	(0.0)	(48.7)

- 2010년 대비 2011년 대졸 초임 연봉 평균 인상 비율은 1.84% 정도로 전망함.
 - 세 업종 모두 2010년에 비해 약 1~2% 정도 인상할 예정임.
 - 업종별 2010년 대비 2011년 대졸 초임 연봉 인상 비율은 제조업 2.03%, 비금융서비스업 1.08%, 금융업 1.80%임
 - 모든 규모에서 2010년에 비해 약 1.6~2.5% 정도 인상할 예정임.
 - 규모별 2010년 대비 2011년 대졸 초임 연봉 인상 비율은 100~299명 1.71%, 300~999명 2.41%, 1,000명 이상 1.63%로 나타남.

〈표 4〉 2009년과 2010년의 대졸 초임 연봉 비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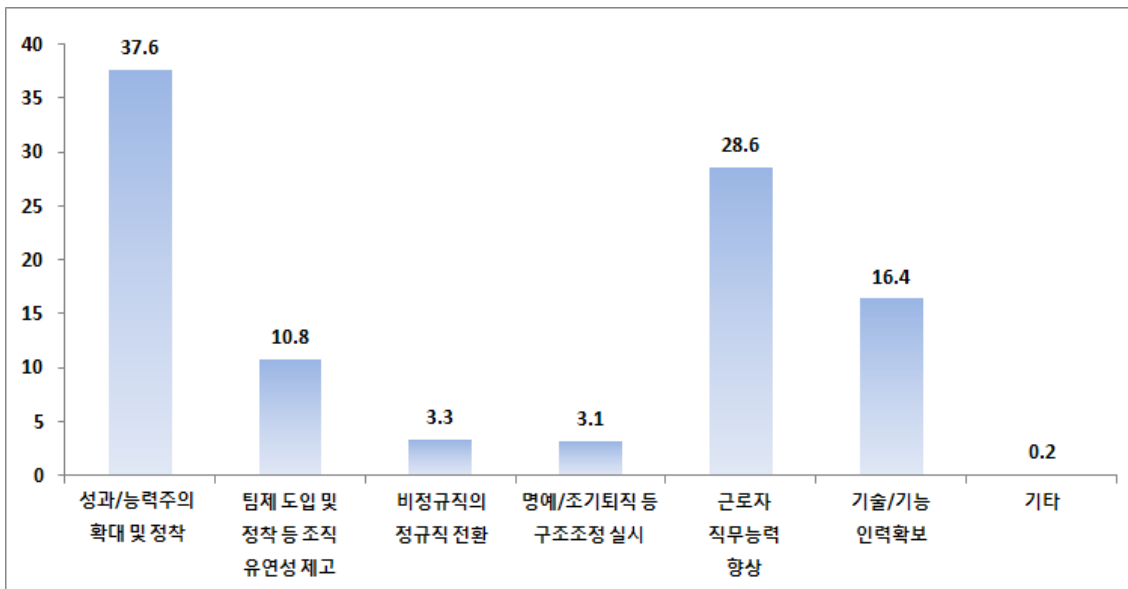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구분		인상 비율
전체		1.84
업종	제조업	2.03
	비금융	1.08
	금융업	1.80
규모	100~299명	1.71
	300~999명	2.41
	1000명 이상	1.63

Ⅲ. 2011년 교육훈련과 인적자원관리

■ 2011년 인적자원관리에서 ‘성과/능력주의 확대·실질적 정착’이 가장 큰 이슈

- 올해 인적자원관리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것은 ‘성과/능력주의 확대·실질적 정착’이 37.6%로 가장 많았고, 다음으로 ‘근로자 직무능력 향상’이 28.6%임.



[그림 6] 2010년 인적자원관리의 핵심 이슈(%)

■ 기업들이 교육훈련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대상은 초급 연구개발 인력임.

- 교육훈련 중점 대상 인력은 초급 연구개발 인력이 20.0%로 가장 높았으며, 중급 연구개발 인력, 초급 영업 및 서비스 인력, 중급 생산/제조 기술 인력과 초급 생산기능직 인력이 10.0% 이상으로 비교적 높았음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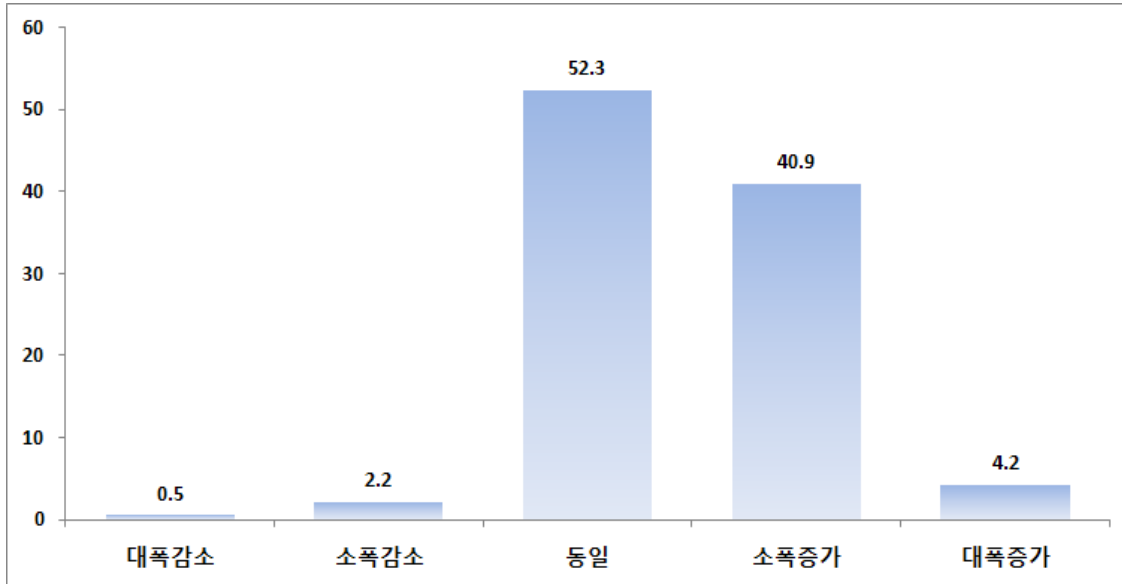
- 업종별로 교육훈련의 중점 대상 인력에 차이가 있음.
 - 제조업은 초급 연구개발 인력(20.5%), 비금융서비스업은 초급 영업 및 서비스 인력(32.6%), 금융업은 초급 연구개발 인력(36.8%)이 중점 대상임.
- 규모별로 100~299명은 초급 연구개발 인력(19.0%), 300~999명은 초급 연구개발 인력(26.4%), 1,000명 이상은 초급 생산기능직 인력(17.9%)이 교육훈련 중점 대상임.

〈표 5〉 2011년 교육훈련의 중점 대상 인력

구분		초급 연구개발 인력	중급 연구개발 인력	고급 연구개발 인력	초급 영업서 비스 인력	중급 영업서 비스 인력	초급 생산/ 제조 기술 인력	중급 생산/ 제조 기술 인력	초급 관리/ 경영 지원 인력	중급 관리/ 경영 지원 인력	초급 생산 기능 직 인력	중급 생산 기능 직인 력	
전체		빈도	102	61	31	59	32	41	54	34	32	55	9
		(비율)	(20.0)	(12.0)	(6.1)	(11.6)	(6.3)	(8.0)	(10.6)	(6.7)	(6.3)	(10.8)	(1.8)
업 종	제조업	빈도	83	50	24	29	21	31	47	29	28	54	9
		(비율)	(20.5)	(12.4)	(5.9)	(7.2)	(5.2)	(7.7)	(11.6)	(7.2)	(6.9)	(13.3)	(2.2)
	비금융	빈도	12	9	7	28	6	10	7	2	4	1	0
		(비율)	(14.0)	(10.5)	(8.1)	(32.6)	(7.0)	(11.6)	(8.1)	(2.3)	(4.7)	(1.2)	(0.0)
	금융업	빈도	7	2	0	2	5	0	0	3	0	0	0
		(비율)	(36.8)	(10.5)	(0.0)	(10.5)	(26.3)	(0.0)	(0.0)	(15.8)	(0.0)	(0.0)	(0.0)
구 모	100~299명	빈도	75	48	25	46	20	33	49	22	23	45	9
		(비율)	(19.0)	(12.2)	(6.3)	(11.7)	(5.1)	(8.4)	(12.4)	(5.6)	(5.8)	(11.4)	(2.3)
	300~999명	빈도	23	10	6	9	8	6	3	11	6	5	0
		(비율)	(26.4)	(11.5)	(6.9)	(10.3)	(9.2)	(6.9)	(3.5)	(12.6)	(6.9)	(5.8)	(0.0)
	1000명이상	빈도	4	3	0	4	4	2	2	1	3	5	0
		(비율)	(14.3)	(10.7)	(0.0)	(14.3)	(14.3)	(7.1)	(7.1)	(3.6)	(10.7)	(17.9)	(0.0)

■ 2011년 교육훈련의 필요성이 증가

- 교육훈련에 대한 필요성이 2010년과 동일하다는 응답이 52.3%이고, 소폭 증가 40.9%와 대폭 증가는 4.2%임. 반면, 소폭 감소와 대폭 감소는 2.2% 이하로 매우 작음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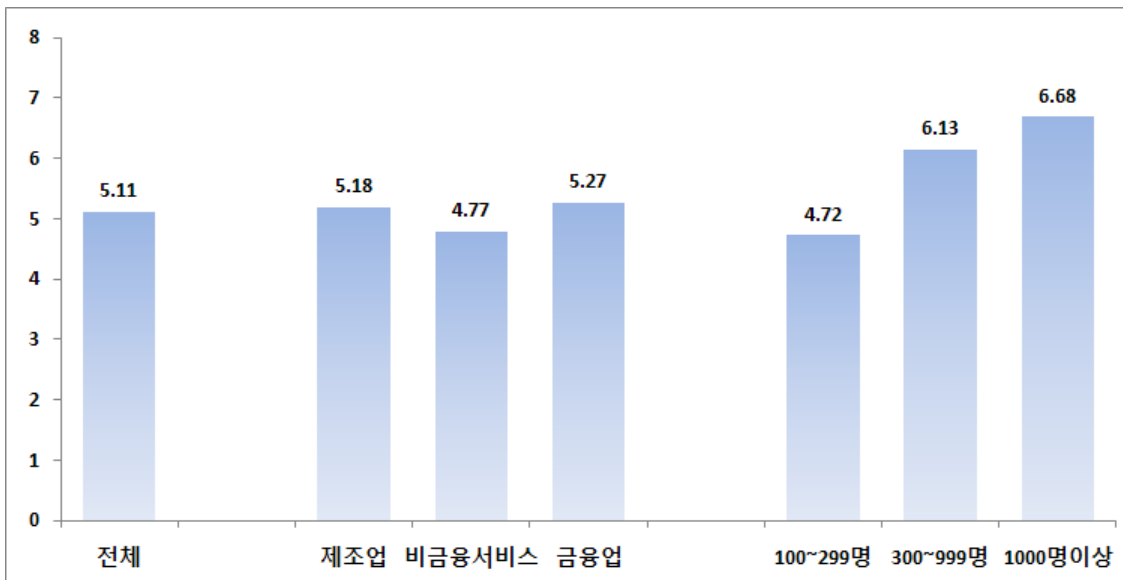
[그림 7] 2011년 교육훈련의 필요성 변화(%)

▣ 교육훈련 관련 투자는 2010년과 비슷하거나 증가 예상

-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는 2010년과 ‘동일’할 것이라는 응답이 50.4%로 가장 많음.
- 증가(40.3%)할 것이라는 예상이 감소(3.0%)보다 월등히 많고 증가 예상의 대부분이 35% 이상으로 나타나, 교육훈련 투자의 증가를 전망함.
- 2010년 대비 2011년의 교육훈련 관련 투자는 5%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

〈표 6〉 2010년 대비 2011년 교육훈련 관련 투자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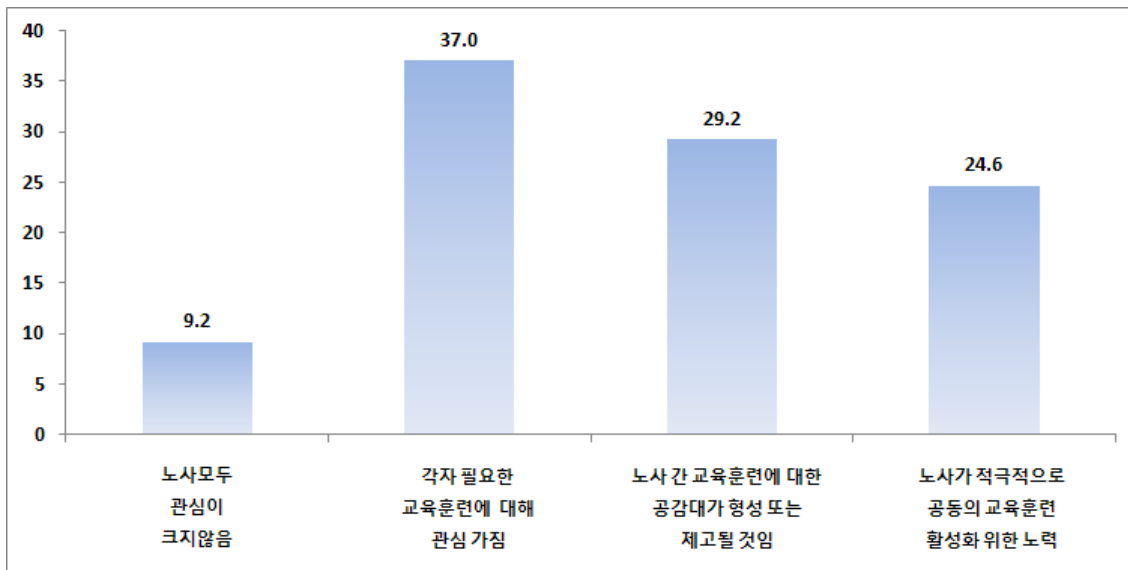
구분		감소	동결	증가
전체	빈도	18	339	241
	(비율)	(3.0)	(56.7)	(40.3)
업종	제조업	빈도	16	265
		(비율)	(3.5)	(57.2)
	비금융	빈도	1	66
		(비율)	(0.9)	(58.9)
	금융업	빈도	1	8
		(비율)	(4.4)	(34.8)
규모	100~299명	빈도	15	260
		(비율)	(3.4)	(58.8)
	300~999명	빈도	3	60
		(비율)	(2.6)	(51.3)
	1000명 이상	빈도	0	19
		(비율)	(0.0)	(48.7)



[그림 8] 2011년 교육훈련 관련 투자 변화(증감 비율 평균)

▣ 노사는 교육훈련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임.

- 종업원 교육훈련에 대한 노사 간의 입장은 ‘각자 필요한 교육훈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’이라는 응답이 37.0%로 가장 많음.
- ‘노사 간 교육훈련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 또는 제고될 것’이라는 응답 29.2%, ‘노사가 적극적으로 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’이라는 응답도 24.6%로 높게 나타남.



[그림 9] 교육훈련에 대한 노사 간의 입장(%)